

한국의 알프스 대관령 양떼목장



대관령 양떼목장은 대관령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백두대간의 웅장한 자태와 목장 산책로의 아기자기한 모습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와 닿는 그 느낌은 마치 유럽의 알프스로 착각할 정도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건초 먹이주기 체험을 통해서 순한 양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약 40분간 시원하게 탁 트인 환상적인 산책로를 걷다보면 어느덧 일상의 잡다한 상념들은 저 멀리 사라지고, 내 자신은 이미 대자연의 품속에 동화되어 진정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목장이지만 과거에는 야생동·식물들의 보금자리였던 울창한 숲이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산 허리가 잘려나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풍요로운 자연 속으로, 오대산

국립공원생태관광프로그램

생태관광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하여 자연과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친환경여행입니다.

청정고도 Happy700에서 펼쳐지는 녹색 여행

대 상	제한없음
참가정원	20명(최소인원 15명)
접수방법	인터넷 예약 및 전화 접수
집결장소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참가신청	예정일로부터 30~3일 전까지
참 가 비	문의(식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료 등)
준 비 물	편안한 복장, 등산(운동)화 등
운영유형	당일형, 1박 2일형



Happy700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 평창, 오대산국립공원으로 초대합니다.

- 전 화 : 033-332-6493
- <http://ecotour.knps.or.kr>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관광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5-6
Tel 033)332-6417~8
<http://odae.knps.or.kr>

Nature, Our Future!

자연의 미래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자연과 문화를 보고 배우는 **친환경** 여행이며,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녹색** 여행입니다.

생태관광이란?

생태관광은 자연과 문화를 보고 배우는 **친환경 여행**이며,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녹색 여행**입니다.

1. 생태관광은 저지대 고품격 탐방문화입니다.

생태관광은 정상지향적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저지대 고품격 탐방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생태관광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여행입니다.

주변지역에 산재해있는 우수한 자연자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배우며 동시에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보고, 듣고, 이해하면서 경험으로 즐기는 의미있는 여행입니다.

3. 생태관광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여행 트렌드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걷기 여행을 통해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국가정책에도 부응하는 저탄소 녹색 여행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관광에 참여하시면!

1.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속같은 넉넉함을 느끼게 해주는 오대산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어 자연의 경이로움뿐 아니라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2. 천년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월정사, 상원사 등 천년의 역사를 간직해 온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속에 간직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자연생태계 보전이 강화됩니다.

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 관광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아 자연생태계 보전이 강화됩니다.

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역의 생산물 구매 등 지역기반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VISIT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관광 안내도





월정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643년)때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수보살을 친견한 후 신라에 돌아와 문수보살이 계시는 이곳 오대산에서 정진하였는데, 그때부터 월정사는 오대산 깊은 계곡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월정사 전경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139호)



월정사8각9층석탑
(국보 제48호)

사찰 건축은 대부분 철저히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전통건축양식에 따라 만들어 졌습니다.

전통건축양식의 특징

1.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을 보완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건축입니다.
2.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하여, 수명을 다했을 때 자연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놓아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습니다.
3. 자연과 건축을 분리시키지 않고 자연을 닮아가려는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자연과의 동화 내지는 합일을 꿈꾸는 건축을 조영해 왔습니다.
4. 재료의 가공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움이 살아 있습니다.
5. 휘어지거나 꺾인 재료들도 버리지 않고 다른 재료들과 잘 조화 시켜 자연스러운 멋을 창조해 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으로, 자연적으로 조성된 전나무숲이 특징입니다.

숲에서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 전나무를 만날 수 있으며, 수백 종의 동·식물과 까막딱다구리를 비롯하여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숲 속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향긋한 전나무 향기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산림욕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전나무숲의 식물 친구들



할아버지전나무



핑크리지



복수초



노랑무늬붓꽃



수정관동

전나무숲의 동물 친구들



청설보



까막딱다구리



하늘다람쥐



북방산개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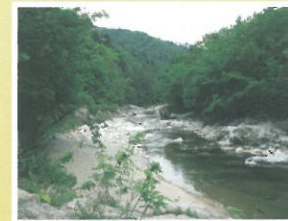
오대산 옛길은 월정사에서부터 동피골까지 약 5km의 숲길로 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에는 상원사까지 다니던 불교 신도들의 순례길이었고 구도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일제시대때 월정사 위에 큰 나무공장이 들어서면서 화전민들과 벌목꾼들이 모여들어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희망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오대산 옛길은 속도의 문화가 아닌 느낌과 여유, 휴식의 문화로, 수직의 문화가 아닌 수평의 문화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길입니다.

옛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옛 선인들이 걸었던 역사의 흔적을 따라 보고, 옛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도 찾아 보면서 이곳만의 문화와 만나보세요.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과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신체적 건강, 마음의 휴식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전민 너와귀틀집



징검다리



섯다리

세조와 문수동자의 인연 깊은 상원사



최초에 진여원이라 불렀던 상원사는 월정사와 더불어 자장율사가 세운 절로 조선시대에 태조와 세조가 행행하여 여러 전설을 남긴 곳이며, 일제말의 대선사 방한암스님이 주석한 곳이기도합니다. 상원사와 관련된 문화재로는 상원사동종, 목조문수동자좌상, 상원사중창권선문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온 우통수에서 발원한 물이 상원사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으며, 조선시대 세조가 이 계곡에서 목욕을 하여 병을 고친 일화로 유명합니다. 해발 900m의 울창한 원시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깨끗한 공기와 조선의 3대 명수의 하나인 우통수가 흐르는 계곡물이 세조의 병을 고쳤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지금도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와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공기,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은 심신의 피로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들과 산에서 만났던 식물 한국자생식물원



자생식물이란?

자생식물이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자라 온 식물을 말합니다.

특히 심고 돌보지 않아도 산과 들에서 스스로 자라는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4천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생식물이 중요한 이유

자생식물은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생물자원입니다.

무관심과 무분별한 채취로 많은 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끼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원으로 가치를 밝혀내어 활용하고, 또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기에 우리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소중합니다.

미래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를 그 특성으로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유가(油價)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태양열,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의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태양열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신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